

뉴스 라운드업

- 미국 7월 비농업고용 -2.3만명 쇼크(예상 +8.0만명)로 9월 추가 인상 기대 후퇴, S&P500·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
- 중국 7월 CPI 전월비 -0.1%·전년비 +0.5%로 예상 하회하며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재부각, 아시아 증시엔 오늘 개장부터 반영될 전망
- 백악관, 연준 쿡 이사 해임 검토 서한 발송하며 통화정책 독립성 우려 확대, 금 4,341.52달러(+2.39%)로 급등
- 미-이란 호르무즈해협 합의 기대·수니 3국 방위협정에도 러시아 송유관 드론 공격 여파로 WTI 78.18달러(+1.15%) 상승

고용 쇼크와 정책 잡음 속에서도 위험선호는 흔들리지 않았다

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2.3만명 감소해 시장 예상치(+8.0만명)를 큰 폭으로 하회했고, 5~6월 고용도 합계 10.3만명 하향 조정됐다. 실업률은 4.1%로 소폭 낮아졌지만 이는 구직 포기 등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 이 발표 직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의 추가 금리인상 확률은 발표 전 55%에서 44%로 낮아지고 동결 가능성은 56% 수준으로 올라섰다. 다만 12월·내년 1월 회의로 갈수록 시장은 여전히 80%대의 높은 인상 확률을 반영하고 있어, 이번 고용 쇼크가 현재 진행 중인 인상 사이클 자체를 되돌리는 신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. 뉴욕 3대 지수는 오히려 이 소식을 반겼다 — S&P500(7,757.64, +0.62%)과 나스닥(26,690.62, +1.30%)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미국 10년물(4.649%, -2.7bp)·2년물(4.199%, -4.8bp) 금리와 달러인덱스(99.60, -0.36%)는 동반 하락했다. 여기에 백악관이 연준 쿡(Cook) 이사에게 해임을 검토한다는 서한을 보내 21일 내 서면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통화정책 독립성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, 금은 온스당 4,341.52달러(+2.39%)로 급등했다.

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 지표는 하우스뷰가 지목해온 중국 디스인플레이션 우려에 힘을 실었다.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-0.1%로 예상치(+0.2%)를 하회했고 전년동월비로도 +0.5%에 그쳐 시장 전망(+0.8%)에 못 미쳤다. 다만 이 지표는 일요일(8/9) 발표된 만큼 지난 금요일 마감한 CSI300(4,694.44, +0.93%)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, 코스피(6,258.77, -0.60%)·항셱(25,668.03, +0.54%)·닛케이(65,606.64, -0.12%) 등 아시아 증시 종가도 모두 이 소식과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마감한 수치다. 실제 반응은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. 같은 날 대만 내각은 2027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6% 늘려 사상 처음 신대만달러 1조(약 310억달러)를 넘기는 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, 중국의 군사·정치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양안 지정학 리스크가 잠재 변수로 남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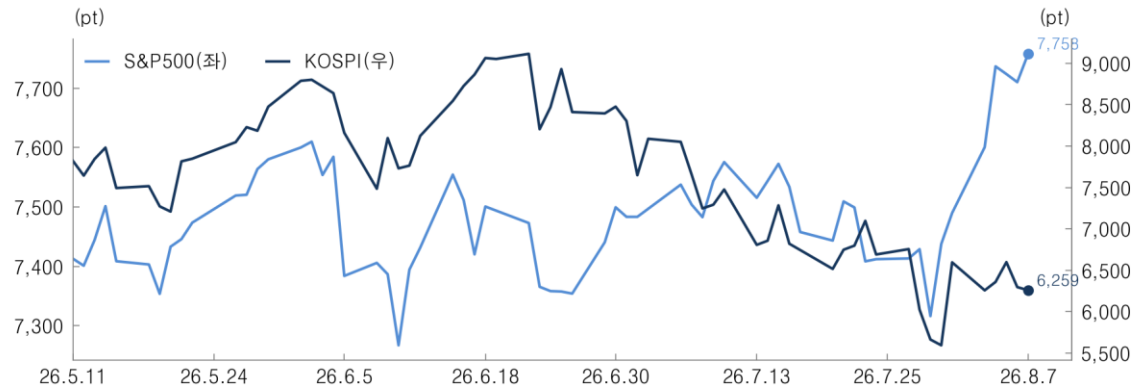
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협상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미 당국자 발언이 나왔고, 사우디아라비아·튀르키예·파키스탄 등 수니 3국은 상호방위협정 체결에 합의했다.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에도 국제유가는 오히려 올랐는데, 러시아·카자흐스탄을 잇는 카스피안송유관(CPC)이 흑해 지역 드론 공격으로 7월 선적량의 5분의 1 가량 차질을 빚은 여파로 풀이된다. WTI는 배럴당 78.18달러(+1.15%)로 마감했다. 한편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제재법안을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.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271bp(-4.0bp)로 좁혀지고 VIX는 14.89(-1.65%)로 1년 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어, 고용 쇼크와 연준 독립성 논란, 중국·대만 관련 변수가 동시에 불거졌음에도 신용시장과 변동성 지표는 여전히 위험선호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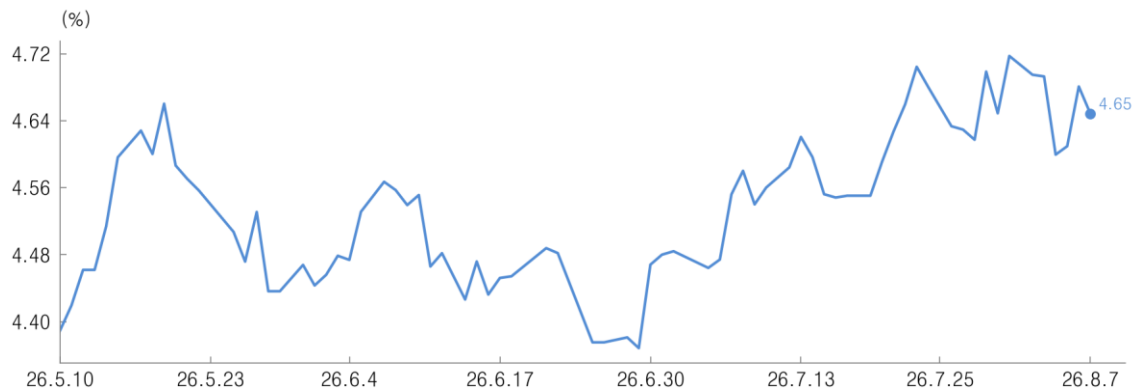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757.64	+0.62%	8/7 종가
	나스닥	26,690.62	+1.30%	8/7 종가
	STOXX 600	660.26	+0.31%	8/7 종가
	닛케이 225	65,606.64	-0.12%	8/7 종가
	CSI 300	4,694.44	+0.93%	8/7 종가
	KOSPI	6,258.77	-0.60%	8/7 종가
	항생	25,668.03	+0.54%	8/7 종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99.60	-0.36%	8/7 종가
	달러/엔	157.70	-0.04%	8/10 종가
	유로/달러	1.16	+0.07%	8/10 종가
	달러/원	1,407.78	+0.02%	8/10 종가
	달러/위안	6.75	-0.02%	8/7 종가
금리	미국 10 년	4.649%	-2.7bp	8/7 종가
	미국 2 년	4.199%	-4.8bp	8/7 종가
	일본 10 년	2.789%	+2.0bp	8/7 종가
	독일 10 년	3.126%	-2.2bp	8/7 종가
	한국 10 년	4.198%	+1.4bp	8/7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1bp	-4.0bp	8/6 종가
원자재	WTI	78.18	+1.15%	8/7 종가
	금	4,341.52	+2.39%	8/7 종가
	구리	6.59	-1.76%	8/7 종가
변동성	VIX	14.89	-1.65%	8/7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11 건 HIGH	• 미국 7 월 비농업 부문 고용 -23,000 명, 연준 인상 기대 크게 약화되며 글로벌 주가·채권 동반 반등 ↳ 미국 고용 전월대비 -23,000 명으로 예상(+80,000 명)에서 103,000 명 이상 하회, 전월 수치도 하향 조정 ↳ 통화시장에서 연준 9 월 인상 가능성 축소 평가, 고정금리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인상 확률 재평가 ↳ 글로벌 주가 5 월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 기록, 기술·소비재 주도 속 강한 실적과 AI 호재가 중등 긴장 우려 상쇄 • 캐나다 7 월 고용 +75,100 명 급증, 2 년 만에 최저 실업을 달성하며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↳ 고용 증가 +75,100 명으로 로이터 설문 예상(+16,500 명)을 크게 상회, 정규직 +38,600 명·임시직 +36,600 명 균형 성장 ↳ 실업률 6.4%로 2 년 만에 최저 수준(전월 6.5%), 3 개월 연속 하락 ↳ 분야별: 건설업 중심 상품부문 +10,800 명, 소매·금융·보험·부동산 주도 서비스업 +64,400 명 / 시간당 임금 +3.0%(전년동월대비, 전월 +3.7%), 완만한 둔화 추세 • 캐나다·미국 부문별 관세 감면 협상 진행 중 ↳ 캐나다가 트럼프 정부 정책 요구사항 수용을 대가로 부문별 관세 감면 협상 중 ↳ 양국이 세부 제안 교환·서면 입장 제시 단계, 아직 합의 미도달(보도: Globe and Mail, 로이터 미인증)
미국 뉴스 77 건 HIGH	• 미국 7 월 고용 2 만 3,000 명 감소, 5 월·6 월 누적 10 만 3,000 명 하향 조정 ↳ 노동부 집계 비농업 신규 일자리 -2 만 3,000 명, 시장 예상치(+8 만명)를 크게 하회하며 예상 밖 약세 ↳ 5 월·6 월 초기 통계도 누적 -10 만 3,000 명 하향 조정되며 지난 수주간의 고용 강세 평가 수정 ↳ 실업률은 4.1%로 하락했으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것(고용 개선이 아닌 시장 이탈) • 연준 9 월 인상 확률 50% 미만으로 급락, 약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기저 압력 사이 정책 딜레마 부각 ↳ 시장 선물 기준 9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인상 확률 55% → 44% 근처로 급락 ↳ 고용 약세는 이번 주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러 연준 고위관계자 발언과 배치되며 정책 선택지 극히 제약 ↳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한 인플레 기저를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 존재 • S&P500 사상 최고치 경신, 나스닥 +1.3% 주도로 4 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 기록 ↳ 다우지수 +0.28%, S&P 500 +0.62%, 나스닥 +1.3%로 마감, 세 지수 모두 4 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 갱신 ↳ 연준 인상 우려 완화로 주가 심리 개선 ↳ Atlassian 4 분기 실적·수익 모두 시장 예상 상회하며 개별주 급등 • 달러 엔·유로 대비 약세, 10 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하며 인상 확률 축소 반영 ↳ 약한 고용 발표 이후 미 달러가 일본 엔, 유로화 대비 약세로 전환(금리 차익 축소 전망)

권역	요약
	↳ 10 년물 등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시장의 인상 기대 약화 반영 ↳ 미 재무부, 다음주 쿠폰채(이자 지급 국채) 1,250 억 달러 추가 발행 계획 • 백악관, 연준 국 총재에 21 일 내 진술 설명 요구하며 연준 제거 위협 신호 ↳ 지난주 화요일(8 월 5 일) 백악관이 국 총재에 서한 전달, 특정 발언에 대한 서면 답변 21 일 내 제출 촉구 ↳ 별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을 연준에서 제거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언급(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) • 미국, 이란·오만 협상 진전 보도, 호르무즈 해협 봉쇄 5 개월 만에 해제 임박 ↳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어제 '이란과 오만 간 협상 진전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개통 임박'이라고 발표 ↳ 지난 5 개월간 진행 중인 미·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출이 단절되어 있으나, 협상 체결 시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 해제 약속 ↳ 사우디아라비아·터키·파키스탄 3 개국 상호방위 조약 체결 선언(역내 안보 강화), 레바논·이스라엘도 헤즈볼라 무장해제 검증국 지정 합의 • 미 상원, 러시아 에너지 제재법 압도적 통과, 하원 난항 예상 ↳ 어제 상원이 대규모 러시아 제재 법안을 큰 표차로 통과(고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의 오랜 주도안) ↳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(對)러 관세 신설 권한 부여 ↳ 하원 통과 단계에서 관세 조항을 둘러싼 이견 예상, 내달 추진 예정
중국 뉴스 8 건 HIGH	• 중국 7 월 물가지수 예상 하회, 내수·생산 약세 신호 ↳ 소비자물가(CPI) 전년비 +0.5%로 설문조사 예상(+0.8%) 하회, 전월비 -0.1%로 상승 기대(+0.2%) 벗어남(어제 발표) ↳ 생산자물가(PPI) 전년비 +3.5%로 예상(+3.8%) 하회, 전월비 -0.7% 하락하며 6 월 +4.1%에서 3 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 ↳ 식품물가 전년비 -1.5%, 비식품 +0.9% 상승, 글로벌 에너지가격 하락이 배경,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 범위 내 인프라 지출 확대로 내수 진작 추진 방침 • 중국 해외 보험료 소득 과세 기준 재확인, 금융주 변동성 ↳ 국가세무총국이 교차국경 보험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기준 적용을 재확인(지난 금요일 저녁) ↳ 금융주 주가 변동 유발, 과세 해석상 불확실성 잔존
일본 뉴스 3 건 HIGH	• 엔화 급강세, 미국 고용 약세에 당국 재개입 경계 ↳ 지난주 금요일 달러당 ¥156.68 으로 회복, 7 월 고점 ¥163.99 대비 약 7 엔 상승 ↳ 일본·미국 당국의 최근 공동 개입으로 엔화 약세 베틱 청산 유도, 재개입 우려로 거래자 경계 확대
대만 뉴스 2 건 HIGH	• 대만 2027 년 국방예산 16% 증액 제안, 역대 최대 T\$1 조(약 \$310 억) 초과 ↳ 정부 내각 최종 심의 예정일은 8 월 20 일 ↳ 중국 군사·정치적 압력 증강, 미국의 자체 방위비 증액 요구가 배경 ↳ 중국의 거의 매일 이어지는 군사작전 속 대만 연례 전쟁게임 진행 중
남미 기타 뉴스 9 건 HIGH	• 콜롬비아 우파 신임 대통령 취임, 공공지출 동결·재정 긴축 강조 ↳ 우파 변호사 Abelardo De La Espriella(48 세) 가 지난 금요일 취임, 초기 연설에서 공공지출 동결·국가 규모 40% 축소·마약 조직 단속 강화·석유·가스 부문 재활성화 등 선거 공약 재강조 ↳ 고용 촉진·세계 단순화를 위한 세제 개혁 추진, 책임 있는 수압파쇄(프래킹) 허가 검토 등 추가

권역	요약
	정책 제시 ↳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자로 평가되는 한편, 라틴아메리카 우경화의 상징 • 칠레 7월 연율 인플레이션 3.5%로 둔화,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 ↳ 지난 금요일 발표, 월간 물가 상승률 0.1%로 시장 예상과 부합 ↳ 연율 3.5%로 6월 4.3%에서 하락, 중앙은행 목표(3% ± 1%) 범위 내 유지 ↳ 기준금리는 현재 4.5% 유지 중, 중앙은행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인상 유보 사유로 제시
EM 기타 뉴스 15 건 HIGH	• 우크라이나 드론, 러시아 에너지·전자상거래 인프라 동시 타격 ↳ 지난 금요일 CPC(카스피파이프라인컨소시엄) 유전의 7월 일일 적재량이 150~160만 배럴에서 120~130만 배럴로 저하, 계획 대비 20% 이상 밀리며 약 40만 배럴/일 손실 발생, 흑해 수출 터미널 인근 드론 공격으로 공급이 차단되며 카자흐스탄 및 국제 석유 메이저의 판매 차질 ↳ Wildberries(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) 약 98,000개 픽업포인트 중 다수가 3주간 우크라이나 드론 20여 회 기습 공격으로 폐쇄, 수만 중소상인 경영 악화 초래하며 러시아 중앙은행·크렘린이 경제 파급 영향 추적 중 ↳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참전 본격화, 북한 미사일 부대가 서부 러시아에 배치되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대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기 6대 배치 예정으로 추정(1950년 이후 평시 최대 규모) • 이란-오만 호르무즈 해협 신규 해운로 거래 최종 단계, 미국 항구 봉쇄 해제 약속 ↳ 어제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해운로 지정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으나, 미국의 추가 조건 충족이 재개 전제 조건, 미국 관계자는 협상 체결 시 이란 항구 봉쇄 해제 계획 명시 ↳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석유·액화천연가스의 약 1/5을 처리하는 전략적 병목이며, 이란의 지난해 폐쇄 이후 거래 재개 명확성 부재로 중동 주식시장이 보합세 유지 • 중동 역내 갈등 다층적으로 진행, 이라크-사우디 안보 협력·레바논-이스라엘 헤즈볼라 감시 합의 ↳ 이라크 총리 알리 알자이디가 지난 토요일 사우디 정보국장 칼리드 알후마이단과 회담, 이라크가 자국 영토의 제3국 공격 이용 방지를 재확인, 지난달 사우디의 이라크 내 이란계 무장세력 공습 이후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 ↳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 헤즈볼라 무장해제 감시국 단축 명단에 합의, 미국이 이 명단에서 1개국 이상 선정 예정이며 다음 달 재협상 예정 • 예멘 후티, 마립 거주지역 일반인 공격 ↳ 이란 지지 예멘 후티가 지난 토요일 마립 난민 수용소 및 주거지역에 탄도미사일·드론 공격 감행, 공식 발표 기준 사망 2명·부상 14명, 후티 측은 사우디 지지 군대·무기 저장소·군용 차량을 표적했다고 주장하나 검증 불가 • 러시아, 독일 드론 사건 공식 부인 ↳ 러시아 베를린 대사관이 지난주 독일 항공화물 허브에서 발견된 드론을 '근거 없는 반러 캠페인'으로 일축, 독일 연방검사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수사 진행 • 우크라이나 외환보유액 7월말 \$512억으로 대외 채무 여력 반영 • 헝가리 팩스 원전, 다뉴브 저수위로 정격 10% 운영 ↳ 헝가리 총리 표테르 마자르, 오스트리아 강우로 다뉴브강 수위 임시 상승 기대 표명하나, 원전

권역	요약
	냉각수 공급원인 다뉴브 저수위 장기화로 정격 용량의 10% 수준만 가동 중 •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신임 총재 임명 미정 ↳ 프라보워 대통령이 신임 중앙은행 총재 후보에 대한 최종 결정 유보, 임시 총재 담마안티 포함 검토 중이며, 지난달 와르지요 총재 돌연 사직 이후 투자 커뮤니티가 인사 과정 주시 • 콩고민주공화국, AFC/M23 에 포로 15 명 인도 ↳ 정부가 지난 금요일 동부 반군에 포로 15 명 인수,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중개했으며 2025 년 카타르에서 체결된 동부 분쟁 종료 협정의 첫 구체적 이행 사례로 평가
유럽 뉴스 8 건	• 독일-중국 수출 12% 감소, 최대 수출시장 위상 9 년 만에 9 위로 급락 ↳ 어제 발표된 독일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중국 수출 €370 억(전년동기대비 -12%), 동기 중국산 수입 €918 억(+8.9%)으로 양국 간 무역수지 적자 심화 ↳ 중국이 2021 년 최대 수출시장에서 현재 9 위로 순위 급락한 것은, 중국의 내수 중심 정책과 산업 자급화 추진에 따라 독일 산업용 기계·부품 수입 수요가 약화된 결과를 반영 • 미국 상원, 러시아 에너지 제재(그레이엄 법안) 통과, EU 21 차 제재에 미국도 후속 조치 ↳ 지난 토요일 폰테라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故 린드세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한 러시아 에너지 제재 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미-유럽 공조 강화 제재 기조 재확인 ↳ 폰테라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'러시아가 계속할 수 없는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박탈'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보완적 강화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 •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서 폭발물 탑재 드론 격추, NATO 물류 거점 테러 미수 ↳ 지난 금요일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버스 운전사가 비행 중인 폭발물 탑재 드론을 격추(검찰 '전문적 수준의 폭발물' 확인), 동부 NATO 지역 군사 주둔지 보급의 주요 물류 허브에 대한 테러 공격 사전 차단 ↳ 정보 당국은 버스 운전사의 신속한 대응이 규모 있는 테러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 • 지난 금요일 파운드화 약세,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와 호르무즈 협상 진전 불투명 영향 ↳ GBP/USD -0.1%(\$1.3438), EUR/GBP -0.1%(85.76 펜스), 시장은 이란 전쟁 장기화 위험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협상 진전의 불확실성 속 신중한 입장 유지 ↳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'조속 종료'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유가는 상승하며, 협상 성공에 대한 시장의 회의를 반영 • 유로존 국채 수익률 주간 최대 낙폭 기록하나 금요일은 긴장 재상승으로 상승 마감 ↳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 낙관에 이번 주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6 월 말 이후 최대 낙폭 기록하는 중이나, 지난 금요일은 중동 긴장 재상승으로 연속 2 일 상승 ↳ 독일 2 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호르무즈 협상 진전 기대와 이란-미국 간 갈등 재심화 사이의 혼조된 시장 심리를 반영하며,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국면 진입 양상
인도 뉴스 7 건	• RBI 인플레이 전망 인하, 유가 하락과 결합해 인도 국채 5 주 만에 주간 상승 ↳ RBI 는 정책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하면서 금년 인플레이션 및 핵심 인플레이션 전망 인하 ↳ 은행권 유동성 충분 공급 약속으로 단기 인상 우려 완화 ↳ 유가 하락 추세와 결합해 채권 수요 회복 • 루피 약세 속 외환보유고 급속 복구, 중앙은행 개입으로 환율 지탱 ↳ 3 월~7 월 외환보유고 650 억 달러 감소 후 7 월 한 달간 150 억 달러 회복, 7 월 31 일 기준 6 조

권역	요약
	920 억 달러 수준 ↳ 루피는 6 월 25 일 94.13/\$에서 7 월 23 일 96.85/\$까지 약화했다가 현재 94.88/\$ 수준으로 부분 회복 ↳ RBI 의 적극적 개입(달러 매입)으로 환율 안정화 유도, 지난 금요일 95.2075/\$로 마감(주간 +0.2%) • 인도 최대 은행 SBI, 1 분기 순이익 10.2% 증가로 전망 상회 ↳ 대출 성장률 18.6%(대출장부 기준), 기업 유동자금 수요와 가계 소비 확대로 신용 수요 견조 ↳ 국내 순이자마진 7bp 확대 3% 달성 ↳ 해외 저리 외화 예금 모집 60 억 달러, 100 억 달러 목표로 추진 중 • Reliance, 호르무즈 해협 선박 부족 속 이라크유 수입 용선료 기록 경신 ↳ 2 백만 배럴 이라크유 수입을 위해 슈퍼탱커 용선료 2,300 만~2,500 만 달러 지불, 기존 운송료의 12 배 수준 ↳ 한국 Sinokor 에서 용선 계약,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필수인 이라크유의 해상 운송 선박 극도로 부족 ↳ 유가 상승에 더해 운송료 인상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 급증 신호 • 인도, 양자 투자조약 모델 재검토·내각 승인 임박 ↳ 영국 등 선진국 파트너와의 새 투자조약 협상 진행 중, 2016 년 조약의 일부 조항이 협상 걸림돌 ↳ 내각이 신규 모델 검토 중, 곧 결정·승인 예정 ↳ 투자조약 개선을 통해 선진국 자본 유입 확대 기대
브라질 뉴스 2 건	• JBS,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자회사와 \$25 억 합작투자 체결 ↳ PT Danantara(인도네시아 국부펀드 DIM 자회사)의 초기 \$25 억 투자 ↳ 호주·뉴질랜드 기존 사업 통합, 인도네시아·동남아 육류 생산 진출 ↳ 추가 \$25 억 규모 부채 조성 계획
멕시코 뉴스 2 건	• 멕시코 7 월 인플레이션 3.12% 기록, 6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 ↳ 지난 금요일 발표, 전월 3.37%에서 0.25%p 하락, 2020 년 5 월 이후 최저 수준 ↳ 경제학자 설문(로이터) 예상치와 일치,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 유지 ↳ 중앙은행(Banxico),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하며 물가 추가 완화 전망
프론티어 뉴스 1 건	• 루마니아 투자등급 Baa3 유지하되 부정적 전망 병행, 2027 년 재정적자 감축이 등급 유지 조건 ↳ 정부 붕괴 후 정치적 분열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7 년 예산에서 EU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의해야 함 ↳ 공공채무/GDP 비율이 2028 년 64.5%까지 상승할 것으로 무디스 예측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